



제5회 베리타스미술상 시상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12월 4일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전기졸업전 우수자 시상식에서 제5회 베리타스미술상을 시상했다. 이날 권영걸 회장을 대신해 자리에 참석한 김홍규 상임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빛나는 졸업작품으로 채워진 뜻깊은 2025 졸업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며, “힘난 창작과정의 여정을 묵묵히 이겨내고 마침내 결실을 맺은 후배 졸업생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더하여 “서울대학교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졸업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올해 수상자는 박소현(21동양), 김서진(21서양), 박경빈(조소24석), 하인용(19공예), 김종현(20공예), 유용준(19디자인), 유서연(21디자인), 정승은(20영상매체) 전공별 1명씩 총 8명이다. 김서진 학생은 수상소감에서 “제게 큰 의미였던 졸업 전시에 이렇게 값진 상까지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이다. 앞으로도 솔직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작업하겠다”고 말했으며, 박경빈 학생은 “베리타스미술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 이번 수상을 격려 삼아 앞으로도 성실히 작품에 임하며 더 깊이 있는 표현을 찾아가겠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승은 학생은 “사회학과 출신으로 연합전공에 진입해 미술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어 행운이었다. 졸업전시에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작업의 형태로 풀어낼 수 있도록, 어려운 주제를 함께 들어주시고 격려해주신 선생님들과 동료분들께 감사드린다. 무거운 마음으로 진행해온 작업이었는데, 이번 수상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하인용 학생은 “베리타스미술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이번 수상은 제가 작업을 지속하는 데 큰 격려와 응원이 되었다. 더 좋은 작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서연 학생은 “1년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작업의 주제를 고민하며 보냈다. 디자인은 사람 간의 이음매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매 순간 작업의 위치와 결과가 데려올 영향을 고려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 같다. 학부 생활과 졸업 전시를 통해 이를 경험하도록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바깥의 일들에 귀 기울이며, 디자인이 필요한 곳에 대한 관찰과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현 학생은 “저의 학부4학년은 정말 특별한 1년이였다. 축복 받은 환경 덕에 현실의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전부 제쳐두고 오직 제 작업세계를 펼치는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작업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때로는 설레이고 때로는 힘겹다. 대부분의 경우 재미있지만 동시에 불안하고 고독하다. 베리타스미술상 수상은 그러한 제 길을 응원하는 소중한 친구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다. 저에게 상을 주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와 좋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앞으로도 좋은 작업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베리타스미술상은 유망한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본회에서 2021년 제정한 상으로, 전시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 후 작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21년부터 동창회장상의 명칭을 ‘베리타스미술상’으로 변경하고 부상으로 ‘베리타스미술상전’을 개최해 수상자들에게 미술계 등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1회 베리타스미술상전은 2022년 6월 포스코건설 더샵갤러리에서 개최됐으며, 제2회전은 2023년 4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2023 SNU빌라다르’와 동시에 개최되었다. 제3회전은 2024년 4월 ‘SNU아트페어’, ‘숨은예술가들’과 함께 한전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제4회전은 2025년 4월 ‘2025 SNU빌라다르’와 함께 한전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수상자들도 2026년 예정된 베리타스미술상전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이시동시 개최

본회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갤러리 PaL에서 '2025 이시동시'전을 개최했다. '다른 시간, 같은 시선'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세대의 작가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느낀 감흥을 각자의 예술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진행된 '백제미술여행'에서 출발했다. 본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한 이 여행에서 작가들은 공주와 부여 일원의 박물관 및 유적지를 답사했다. 당시의 경험과 감상이 회화, 조각, 디지털아트,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참여 작가들은 각자의 시선과 해석을 통해 고대 백제 문화가 지닌 예 등술적 가치와 미적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다. 참여 작가의 세대 폭이 넓은 점도 이번 전시의 특징이다. 20대 신진 작가부터 80대 원로 작가까지 저마다의 시선으로 백제의 흔적을 재해석했다. 이번 전시에는 총 21명의 동문 작가들이 참여했다. 조은경(61회화), 손문자(62응미), 김소선(63조소), 서동희(66응미), 이정연(71회화), 이애자(73응미), 박혜령(74회화), 신경훈(74회화), 이민주(76회화), 박혜경(79회화), 박소영(73회화), 변영혜(78회화), 박혜경(78회화), 민수정(82회화), 안수경(85공예), 강보경(87동양), 고경래(88동양), 선우항(91서양) 박도현(16디자인) 동문 등이 참여했다. 본회 회원 뿐 아니라 활발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류은자(환경대학원 SGS31기) 동문도 참여했다. 동문 소개로 참여한 장규자 가부키춤 무용가는 사진을 출품했다. 또한 현재 모교 재학 중인 김윤이(23서양) 학생이 참여하여 다양한 세대와 분야의 동문들이 함께하는 전시가 되었다. 2일에 열린 전시 오프닝 행사에서는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직접 설명하며 감상을 나눴다. 또한 12월 3시 전



시장 1층에서 '백제 문화와 일본 문화의 흐름'이란 주제로 일본차에 대한 강의와 함께 차를 시음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월드티 아카데미 이흥주 원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참석자들과 함께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작품 감상 시간이 이어졌으며, 작품 판매도 이뤄지며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본회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고대문화의 정수인 백제 미술의 아름다움과 그 시대의 정서를 현대의 감성으로 재조명하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예술적 대화를 이어가고자 했다. 또한, 동문 작가들이 공동의 체험을 통해 느낀 영감과 창작의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예술적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전시 공간인 갤러리 PaL은 본회와 MOU를 체결하고 동창회 주최 전시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 본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갤러리와 MOU를 체결하는 등 동문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될 여러 활동을 개진할 계획이다.



예술품을 이어가고자 했다. 또한, 동문 작가들이 공동의 체험을 통해 느낀 영감과 창작의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예술적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전시 공간인 갤러리 PaL은 본회와 MOU를 체결하고 동창회 주최 전시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 본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갤러리와 MOU를 체결하는 등 동문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될 여러 활동을 개진할 계획이다.

회장동정



택견의 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 특강

본회 권영걸(69응미/세종평생교육 정책연구원 원장) 회장이 지난 11월 22일 '2025 한국 택견의 발전을 위한 학술 세미나'에서 '택견의 역사와 미래 지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권회장은 특강에서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록된 택견의 역사를 설명하고 택견의 교육 현장 적용 가능성과 디자인 지원체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세종연구원 대평동 이전 통합공간 마련

권회장은 지난 12월 2일 세종연구원의 통합공간을 내년 3월 대평동 민간 건물에서 임대 형태로 새로운 업무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권회장은 "과학기술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전국 최고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연구원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미래전략아카데미 4기 시민포럼 개최

권회장은 지난 12월 15일 박연문화관 문화강좌실 1에서 '2025년 미래전략아카데미 4기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세종 교통 정책을 주제로, 1기에서 시민이 직접 제안했던 교통 아이디어를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민참여형 포럼으로 운영됐다.



S-미술아카데미 겨울특강 수강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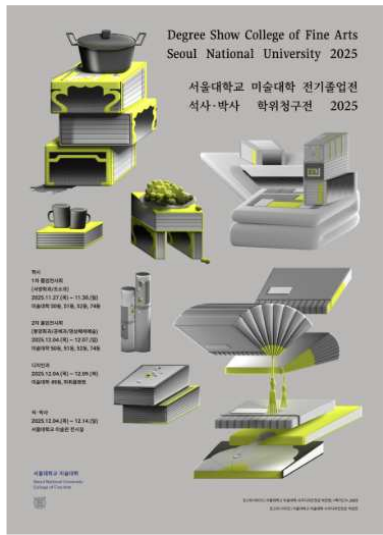
S-미술아카데미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7주간 겨울특강 미술실기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본회 산하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프리페인팅: 유화·아크릴화(강사 조명식) △기초소묘·드로잉: 풍경화 특강(강사 김호준) △태블릿PC 디지털페인팅: 기초부터 작품 제작까지(강사 이영훈) △사군자: 여백과 묵향의 힐링(강사 변영혜) △수채화: 초·중·고급(강사 박혜령) △현대수묵화: 풍경·인물·정물·문인화 창작(강사 조래원) △자유크로키: 누드(강사 없음) △포토샵 배우기: 기초부터 활용까지(강사 이영훈) 등 총 8개 강좌로 구성됐다. 모든 강좌는 오랜 실전 경험과 교육 경력을 쌓아온 모교 출신 강사들이 맡으며, 수강생의 수준과 필요에 맞춰 개별 지도한다. 개인의 실력에 맞춘 실기와 이론 수업을 병행해 수강생들이 직접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S-아카데미는 지난 9월 8일부터 오는 12월 26일까지 가을학기 미술실기강좌를 진행하며 회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수강신청: 010-8605-8065)

모교소식



2025 전기졸업전 및 석사·박사 학위청구전

모교(학장 정의철)는 2025학년도 전기 졸업전 및 석사·박사 학위청구전을 개최했다. 모교 정의철 학장은 지난 12월 4일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열린 공식 개막행사에서 환영사를 통해 "동장군이 물러온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하고 "미술대학에서 졸업전시는 졸업식에 준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학교생활을 마무리하는 학생들



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졸업생 여러분의 앞길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학장상, 베리타스상, 두오모상 등의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졸업전시와 학위청구전은 예비 예술가들이 학업의 결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첫 무대이자, 미술대학의 교육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연례행사로서 의미를 더했다. 서양화과, 조소과, 동양화과, 공예과, 영상매체예술전공, 디자인과 등 6개 학과 학부 졸업예정자와 대학원 학위청구자들이 그간 갈고닦은 예술적 역량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자리였다. 이번 전시는 학과별 특성과 전시 규모를 고려해 일정을 나누어 진행됐다. 가장 먼저 문을 연 것은 서양화과와 조소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모교 50·51·52·74동에서 졸업작품을 공개했다. 회화와 입체조형 분야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탐구해온 조형 언어와 예술적 실험의 결과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였다. 이어 동양화과, 공예과, 영상매체예술전공이 지난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시를 이어받았다. 전통 회화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한 동양화과, 도자·금속·섬유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공예과, 영상과 뉴미디어를 매체로 삼은 영상매체예술전공 학생들의 작품이 각 전시 공간을 채웠다. 디자인과는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옛새간 모교 49동과 파워플랜트에서 별도로 전시를 개최하며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공간디자인 등 분야별 졸업작품을 선보였다. 석·박사 학위청구전은 지난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진행됐다. 학부 졸업전시보다 긴 기간 동안 열린 이번 학위청구전에서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 심화된 연구와 창작 활동의 성과가 집약된 작품들이 전시됐다. 학문적 깊이와 예술적 완성도를 동시에 갖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역량이 돋보이는 자리였다. 이번 전시는 총 149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석사 박사는 총 43명의 학생이 학위청구전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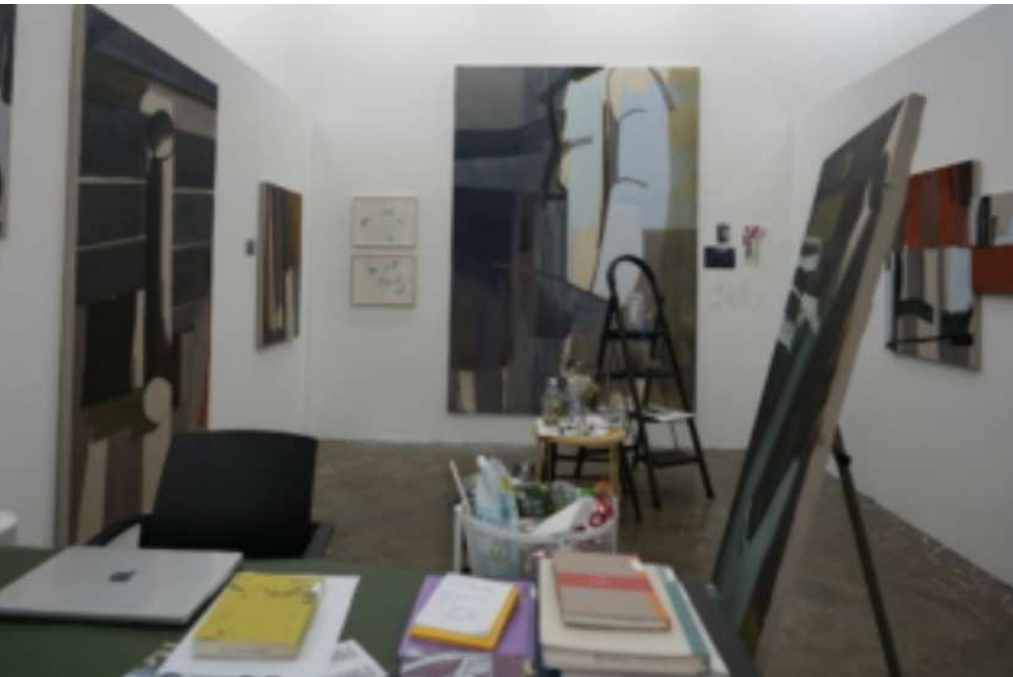
조소과 심포지엄 'What comes Next?'

모교 조소과가 심포지엄 「WHAT COMES NEXT?: 다음 세대의 미술은?»을 개최했다. 행사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40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74동 201호 오디토리엄에서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조소과 학부 졸업전시와 연계해 마련된 연례행사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동시대 미술 환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고, 변화하는 예술 환경 속에서 다음 세대의 작업과 전시가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심포지엄에는 세 명의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했다. 밍진 차이 대만 아시아대학미술관 부관장, 김남시 이화여대 조형예술학부 부교수, 김윤옥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가 강연을 맡았으며,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

어졌다. 이번 행사는 동시대 조각과 현대미술이 직면한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실천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대미술의 이론, 전시, 기관 실무를 다각도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동양화과 김지평 작가 초청 특강

모교 동양화과가 김지평 작가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은 지난 11월 19일 모교 74동 201호 오디토리엄에서 진행됐다. 김지평 작가는 '동양화'의 개념과 기법에 내재한 전통적 세계관과 보는 방식을 비평적으로 해석해온 작가다. 그에게 민화, 산수화, 괴석도, 장황(粧潢/裝潢)과 같은 동아시아 미술의 형식은 현대의 실증적 사고방식이나 기술 의존적 미디어가 담아내기 어려운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다. 김작가는 공인된 전통이 이미 근대성의 일부가 되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통이 스스로 배제해온 재야의 미술, 야생의 사고, 신화의 상상력을 서구 중심의 근대성 밖에서 사유할 것을 제안한다.



동양화과, 서양화과 석박사 오픈 스튜디오

모교 동양화과와 서양화과 대학원 오픈스튜디오가 개최됐다. 서양화과는 지난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총 15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모교 74동 308, 309, 315호에서 개최했다. 동양화과는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모교 74동 406호에서 진행했다. 이번 동양화과 오픈스튜디오의 제목은 《반복적인, 총총, 엉망진창, 스며드는, 싹싹, 좁은, 창백한, 낭만적인, 다채로운, 한산한, 사부작사부작, 귀여운, 고요한, 흘러가는, 쌓여가는, 지저분한, 아침을 시작하는, 눈부신, 느린, 우당탕탕, 기다란, 반짝반짝한 오픈스튜디오》이다. 74동 406호에서 작업하는 22명이 각자의 공간을 설명하는 단어를 하나씩 내놓아 완성한 제목이다.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 13기 수료전시

모교와 관악구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 13기 수료 전시가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모교 49동 S&D홀에서 진행되었다.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은 창의적이고 예술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예술 교육을 제공하여 미래의 예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올해 제13기 교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61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14일 열린 수료식에서는 13기 수료생 51명과 학부모, 정의철 학장, 김형숙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장 및 지도교수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대소식



제3차 On the Lounge, 총장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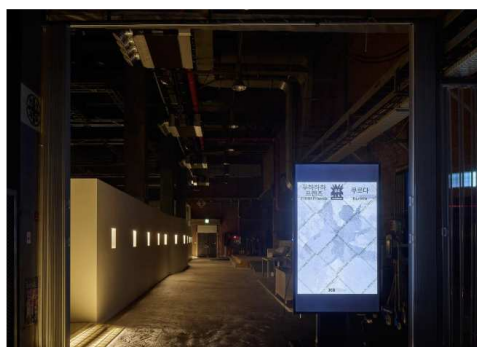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은 지난 11월 4일 중앙도서관 1층 SNU 커먼즈에서 2025학년도 제3차 'On the Lounge: 총장과의 대화'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AI 시대, 서울대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유 총장과 이준정 교육부총장, 김주한 연구부총장, 김준기 기획부총장 등이 참석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학생과의 대화는 AI와 교육, 연구, 윤리 문제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많은 질문과 발언이 이어졌다. 서울대 차원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준정 부총장은 "AI 연구와 교육을 포괄하는 윤리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유홍림 총장은 이날 논의를 마무리하며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AI 시대를 맞이해 대학 차원에서도 열정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대-스웨덴 혁신교류 프로그램 'SKERIC Week 2025'

서울대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과 스웨덴의 혁신 교육 및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SKERIC Week 2025' 행사를 개최했다. 양국 8개 명문 대학을 비롯해 연구자, 대학 리더, 외교 관계자 등 총 160여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스웨덴에서 80명 이상 대규모 방문단이 한국을 찾았다. 서울대는 18~21일 3개 워크패키지(WP)별 공식 프로그램뿐 아니라 호라이즌 유럽 참여 준비 역량 강화 및 미래 선도 연구 성과 공유에 초점을 맞춘 핵심 프로그램들을 주도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서울대는 19일 룬드대학교와 공동 기획한 '서울대 연구자를 위한 호라이즌 유럽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한 SKERIC에서 출발한 교류가 성과를 맺는 기념적인 학술행사도 마련, SKERIC WP1을 통해 구성된 AI 분야 한-스웨덴 신진 연구자 그룹이 기획한 AI 심포지엄이 서울대, 룬드대 공동 주최로 열렸다. 2023년 출범한 SKERIC 프로젝트는 그간 양국 간의 학술적 교류를 넘어, 신진 연구자 그룹 형성 및 연구 기반 스타트업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왔다.

문화예술원 <다이얼로그 04: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아>



서울대 문화예술원이 지난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서울대 68동 제1 파워플랜트에서 만화와 건축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전시 《다이얼로그 04: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아》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건축사사무소 푸하하하프렌즈와 만화 동인 쿠로다(黒田)의 협업으로 꾸러졌다.

쿠로다는 숲을 주제로 소년과 소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냈고, 푸하하하프렌즈는 이 만화를 공간적으로 읽기 위한 특수한 구조물을 설계했다. 이번 전시는 시리즈의 네 번째 기획으로, 박제성 모교 조소과 교수이자 문화예술원 예술감독이 전시를 총괄했다.



서울대학교 건강주간

서울대는 교내 구성원의 건강한 일상과 활기찬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2025 서울대학교 건강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기간 동안 관악캠퍼스 잔디

광장에서는 건강체험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잔디 위 힐링요가&건강댄스, 건강샤인 걷기, 헌혈버스, 경품 행사 및 폐막식 등 다양한 행사가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행사 마지막 날 개최된 '건강 샤인 걷기대회'에는 유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학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총장은 대회 시작에 앞서 "건강은 행복의 필수 요건"임을 강조하며 대학 구성원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고, 참가자들과 1시간 가량 캠퍼스를 함께 걸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밥스누 '서울대 빵' 출시 화제



서울대 기술지주 자회사 밥스누(BOBSNU)가 이마트24와 손잡고 '약콩두유빵 시리즈' 3종을 출시했다. 서울대 이름을 단 빵이 등장해 수험생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신제품은 △약콩크림빵 △카라멜약콩크림롤 △약콩크림카스테라 등으로, 밥스누의 대표 상품 '약콩두유'를 원료로 만든 크림을 사용했다. 약콩두유는 100% 국산 약콩을 겹질째 갈아 만든 식물성 단백질 음료로, 이번 제품에는 약콩두유 함량을 최대 9.96%까지 높였다. 온라인에서는 "이거 먹으면 서울대 갈 수 있냐"는 반응이 이어지며, '서울대 빵'이 새로운 수험생 간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특별전 <규화명선>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지난 10월 2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연구원 전시실에서 특별전 '규화명선(奎畵名選): 규장각에서 만나는 조선의 그림'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한 국보·보물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9건 12점이 포함된 유물 54건 75점을 공개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규장각을 창설한 조선의 국왕 정조가 규장각 초계 문신들의 뛰어난 글을 모아 편찬한 책 '규화명선'을 차용해 조선의 빼어난 그림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규화명선'이라는 전시 제목은 '빛날 화(華)'를 '그림 화(畵)'로 바꿔 규장각에 소장된 명작들을 엄선해 전시했다는 기획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다. '규화명선'은 궁중회화, 행사기록화, 초상화, 산수화, 판화 등 다채로운 그림 속에 담긴 조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삶과 이상을 함께 사색할 수 있는 자리다.

국가고객만족도 국립대 부문 1위

서울대가 2025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국립대학교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서울대는 81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선두에 올랐다. 서울대는 올해 전공 미지정 입학 제도인 '학부대학'을 신설하고, 신입생 적응을 돕는 상담 및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전공 탐색 주간' 운영, 신입생 대상 심리검사와 진로 상담, 융합전공 정보 공유 등 체계적인 지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총동창회소식



관악산 등산대회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66사회사업)는 지난 11월 6일 관악산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산행은 모교 정문 인근 관악산 입구에서 출발해 호수공원과 무너미고개를 지나 안양수목원 정문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안양수목원이 모교 소유로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 자리로, 김경원(58경제) 동문부터 이종혁(92응용화학) 동문까지 40여 명의 동문이 참여했다. 가을 정취가 물씬한 날씨 속에서 참가자들은 산길을 걸으며 교류와 친목을 다졌다. 참가자들은 오전 10시 관악산 입구에 모여 간단한 준비운동과 코스 안내를 마친 뒤 4개 조를 나눠 출발했다. 코스는 완만한 능선을 따라 약 2시간 30분간 이어졌으며, 관악산의 주요 산책로와 학술림 구간을 함께 거치는 구성으로 짜였다. 호수공원 주변의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붉고 노랗게 물들어, 가을의 절정을 보여줬다. 참가자들은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모교를 품은 산이 이렇게 아름다웠다” 하는 감탄을 나눴다. 행사를 총괄한 성봉주(84체육교육) 산악대장은 “무엇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사전에 코스를 여러 차례 답사하며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계절마다 함께 걷는 자리가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관악산 등산은 단순한 산행을 넘어 세대를 잇는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됐다. 총동창회는 앞으로도 산행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문 간의 연대와 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두 차례의 등산 프로그램과 더불어 국토문화기행을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연간 6차례의 정기 모임을 운영할 예정이다.

10월 한달 44명 동문 1631만원 장학금 기부

지난 10월 한 달간 총동창회에 전달된 기부금은 총 1631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총 44명의 동문이 참여해,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을 위한 모교 사랑을 실천했다. 임중두(상학61) 동문은 200만원을 납입했고, 이기용(68독어교육) 동문은 125만원을 기부하며 정기 후원을 이어갔다. 가갑손(AMP 18기) 동문은 첫 기부로 100만원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권호진(74토목), 김동호(62불문), 변종오(77요업), 손경희(HPM 3기), 유재한(73경제), 이범직(61역사교육) 동문 등은 각각 100만원을 기부하며 오랜 기간 이어온 정기 후원을 지속했다. 김한중(68토목), 우희명(GLP 37기) 동문은 각각 50만원씩 납입하며 약정 이행을 이어갔고, 이창건(49전기) 동문은 30만원을 기부했다. 10월 말 기준 올해 누적 기부금은 26억 7965만 8000원이다.

11월 조찬포럼

총동창회 11월 조찬포럼이 지난 11월 13일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구윤철(82경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섭 총동창회장, 유홍림(80정치) 총장, 이희범(67전자) 부영그룹 회장, 조완규(48생물) 전 총장, 서병륜(69농공) 관악경제인회장 등 주요 동문 인사들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의 강연이 예고되자 사전 신청 200여 석은



조기에 마감됐고, 현장에는 30·40대 젊은 동문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연단에 오른 구윤철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말해주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규정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의 고도성장 시기는 이미 지나갔고, 인구 감소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 이제는 성장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20일 경제부총리에 취임하면서 “성장률이 더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처절한 마음이 들었다”고도 고백했다.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해 치렀던 관세 협상 과정 또한 회상하며 “그때도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국과의 수출·기술 경쟁은 그보다 훨씬 거센 파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부총리가 제시한 핵심 해법은 ‘산업경쟁력 초집중 전략’이다. 그는 “30개의 전략 산업을 선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그 가운데 10%만 세계 1등 기술을 확보한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 종료 후 참석자들에게는 조찬과 구윤철 장관의 저서 ‘AI 코리아’가 제공됐다.



관악경제인회 1회 ESG포럼

관악경제인회(회장 서병륜/69농공)가 지난 11월 4일 서울 시청역 인근 상연재 별관에서 ‘제1회 ESG포럼’을 열었다. 관악경제인회 ESG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한 첫 공식 포럼으로, 사전 신청 인원을 훌쩍 넘는 8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국내외 산업계의 핵심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포럼은 동문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속가능 경영의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됐다. 조완규(48생물) 전 서울대 총장과 서병륜 관악경제인회 회장, 박영안(72경영) 태영산선 대표, 이강덕(82정치) KBSN 대표, 임현숙(70화학) 삼성디자인학교 교수, 이종열(69경영) 김앤장 고문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현장은 “ESG가 더 이상 대기업만의 과제가 아닌 모든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됐다”는 공감 속에 활기를 띠었다.

총동창회 행사안내 (참가문의 02-702-2233)

2월 수요특강

일 시 : 2026년 2월 4일 (수) 오전 7시 30분
장 소 : SNU 장학빌딩 (참가비 2만원)

2월 국토문화기행

일 시 : 2026년 2월 12일 (목)
답사지 :추사고택 등 예산 일대 (참가비 5만원)

3월 조찬포럼

일 시 : 2026년 3월 12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참가비 5만원)

3월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

일 시 : 2026년 3월 27일 (금) 오후 6시
장 소 :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회비납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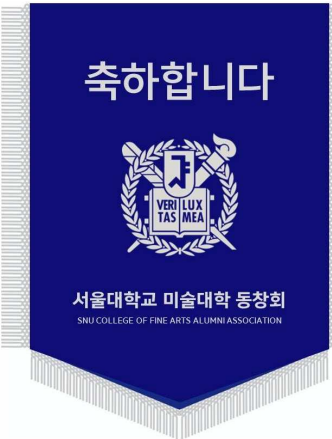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25.11.12-12.15)

- 부회장회비 김순애(78응미) 김유숙(87서양) 김천일(71회화) 김춘수(77회화) 김항록(80조소) 안영나(80회화)
- 이 사 회비 김유주(80응미) 김진경(82응미) 박덕실(81회화) 최미영(70응미) 홍미엽(76회화)
- 일 반 회비 김유정(07동양)
- 광고후원금 이해주(69응미) 30만원 김소선(63조소) 20만원 이민주(76회화) 20만원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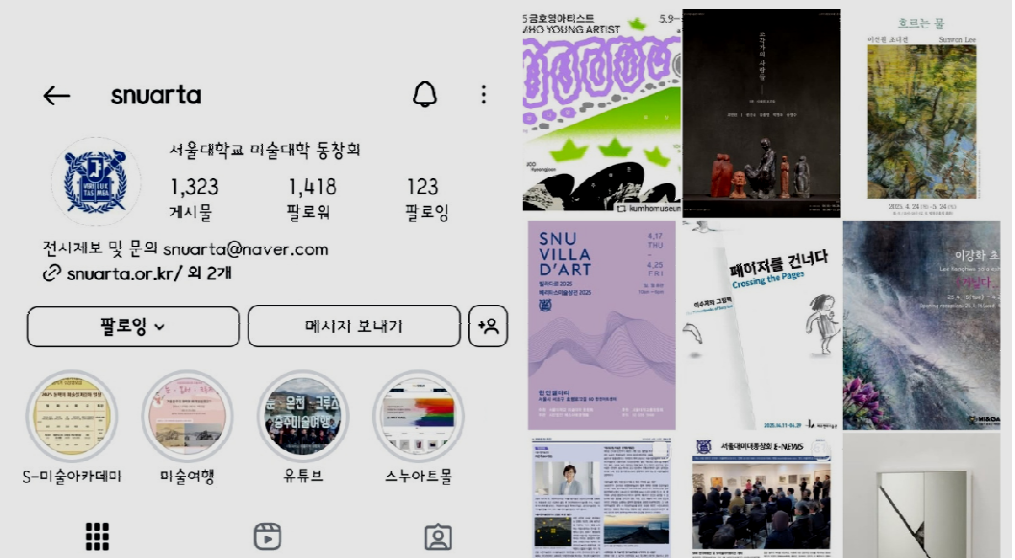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 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소식을 보내주세요~

본회 소식지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15일 발행되어 동문 및 관련 단체 등 4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휴대폰이나 본회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S로 직접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 김홍도(98동양).

광고후원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말일
- 발 행 일 : 매월 15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S-미술아카데미

겨울특강 수강생모집

2026 겨울특강 미술실기강좌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오전 10 - 13시	기초소묘드로잉 풍경화 특강 김호준	프리페인팅 유화·아크릴화 조명식	현대수묵화 풍경·인물·문인화 정물의 변용 조래원	태블릿PC 디지털페인팅 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이영훈
	자유 크로키 누드 강사 없음	포토샵 배우기 기초부터 활용까지 이영훈	사군자 여백과 묵향의 힐링 변영혜	수채화 초·중·고급 박혜령
오후 14 - 17시				

주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주관 (사)에스아트플랫폼 후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접수기간
12월 5일(금)~25일(목)

접수방법
문자접수(010-8605-8065) 및 수강료 입금
계좌: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수강기간
26.1.5(월)~2.27(금) 7회 / 공휴일 휴강(보강 진행)
오전강좌: 10~13시 / 오후강좌: 14~17시

강의장소
S-미술아카데미 실기실(종로구 인사동9길16 백악미술관2층)

수강정원
강좌별 15명(신청순 접수. 복수신청 가능, 10명 미만 폐강)

수강료
강좌별 21만원(7회)
*자유크로키 10만원(5회) 모델료 별도
*환불규정 홈페이지 참조

강사진 및 아카데미 안내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S-미술아카데미)

문의
02-877-8065(평일 10시~17시)

동문탐방

안필연(80조소)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그림을 전공하게된 계기는

어릴때 부모님이 우리 자매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셨다. 아침 일찍 수업을 듣고 나서 학교에 가게 하셨는데 피아노를 치다 건반에 손을 올린 채로 잠이 들었다. 피아노 선생님이 깨운다고 손을 확 내리쳤는데 그 순간 건반이 눌리면서 어마어마한 굉음이 울려 그대로 기절했다. 그 뒤로 피아노 레슨을 그만두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날 친구가 나무 박스에 물감과 테레핀 같은 미술 재료를 잔뜩 들고 왔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화실에 가면 이걸로 그림을 그린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화실에 갔는데 남도 사투리를 쓰는 여선생님이 계셨다. 너무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분 덕에 미술을 시작하게 됐다. 한 선생님은 나에게서 음악이라는 예술을 빼앗아 가셨지만 다른 선생님은 예술의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것이다. 그 후 가르치는 일을 27년간 했지만 한 번도 학생들을 야단 친 적이 없다. 그 젊은 영혼들이 무엇이든 포기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기억나는 일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보낸 시간은 예술가로서의 뿌리를 만들어 준 시기였다. 돌이켜보면, 작품을 만들 때만큼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잘 느끼지 못했다. 전공 실습실에서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작업에 매달려 있다가 어느 순간 문득 창밖을 보면 이미 새벽녘이 되어 있는 일이 잦았다. 당시 함께 작업하던 동기들과 서로의 작업 공간을 오가며 의견을 나누고, 재료 하나를 두고 밤새 토론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특히 졸업작품전을 준비할 때 팀 프로젝트처럼 서로의 작품 설치를 돕느라 며칠을 학교에서 지냈던 경험이 있다. 그때 만들어진 동료애와 유대감은 예술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지금 공공예술과 문화행정에서도 큰 힘이 되고 있다.



Rising Sun 2023, 중국 광저우

많은 작품 중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나 전시는

1990년에 제2회 개인전 도박(Gambling)을 표화랑에서 하게 되었다. 이름 '필연'은 딸 많은 집안에 아들을 낳으라고 지어진 이름의 의미였다. 어려서부터 이름의 의미가 싫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의 이름을 가진 여자들의 이름을 찾아 500개 성씨에 붙여 도장을 만들어 찍으려고 도장을 새기는 기계도 준비하고 전시 준비 중이었다. 도장집에 주문한 도장을 찾으러 갔다가 수십 개의 도장을 새겨 달라고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도장집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즉심에 넘겨진 일. 그 후 도장을 겨우 완성하고 그 도장을 찍기 위해 한지를 직접 떼서 만드시는 비구 스님이 계신 지선암으로 가는 중 경춘가도서 대형교통사고로 신문에 부고까지 났었다. 단기 기억을 상실하고 반신이 마비되어 2년여를 정상 생활을 못한 후 얻은 깨달음은 남의 도장을 새기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 내가 없어도 지구는 아무 일도 없이 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후 자신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내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되었다.

무수한 에피소드와 도전의 파고를 넘기며 왔다. 이렇게 많은 파도를 겪었다고 이제는 평안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또 다른 도전이 오겠지만, 단지 한 가지는 그것을 넘길 수 있겠다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중점을 두고 한 일과 앞으로 계획하는 일은

재단 대표로 취임한 뒤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화성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를 마련하고 지역 예술 생태계를 한 단계 넓히는 일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내년 1월 15일 문을 여는 화성예술의전당은 의미가 크다. 화성시에서 처음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공연장으로 대공연장(1,450석)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이다.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 향유 공간이 되고,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창작과 발표의 기반이 될 중요한 문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운영 시스템부터 브랜딩, 프로그램 구성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해 왔다. 또한 화성의 예술 생태계를 도시 밖으로 확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화성특례시 예술로 365'사업 준비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 인사동의 인사아트센터에서 화성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지역 예술의 유통 기반을 보다 넓은 무대로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지역의 창작물이 서울의 예술 중심지와 직접 만나고,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화성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예술의 외연을 넓히는 이러한 시도들은 결국 화성이 예술 도시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기반을 다지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술이 도시의 일상과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려 한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술가로서 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보람을 안겨주는 여정이기도 하다. 후배들에게 "자신의 언어를 찾는 데 시간을 아끼지 말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기술이나 유행은 빠르게 변하지만 자신만의 미감과 사고를 구축하는 일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한 예술은 혼자 완성되는 작업 같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과 만남 속에서 확장된다. 열린 마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

동창회와 동문들에게 한마디는

졸업 후 각자의 길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자리에서 예술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동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나 또한 공공분야의 현장에서 예술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학교에서 배운 문화예술의 가치와 아름다움, 그리고 동문들의 존재가 큰 힘이 된다. 앞으로도 서로의 지식과 경험이 이어지고, 젊은 세대의 예술가들에게도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 언제나 동문으로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볼프강 한상' 수상 이우환(56회화)

이우환 동문이 독일 쾰른 루트비히미술관 현대미술협회가 수여하는 제32회 '볼프강 한상(Wolfgang Hahn Prize)'을 받았다. 볼프강 한상은 1994년 제정 이후 개념 기반 작업을 펼친 작가들에게 수여되어 왔으며, 한국 작가로는 양혜규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의 게스트 심사위원이자 도쿄 모리미술관장 마미 카타오카는 선정 이유에 대해 "이우환은 60년에 걸친 작업을 통해 동서의 경계를 넘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해왔다. 서구 모더니즘을 따르지도, 동양적 전통에 머물지도 않은 그의 독자적 사유는 오늘 우리가 갈망하는 '총체적 인식'을



되살린다"고 말했다. 수상 기념전은 오는 2026년 11월 7일부터 2027년 4월 4일까지 루트비히미술관에서 열린다. 한편 이동문은 1968~1975년 도쿄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본 미니멀리즘 '모노하'의 공동 창립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사물과 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배치하며 "사유의 구조를 다시 짜는 예술"을 추구했고, 1970년대 이후 단색조 회화의 정신과 맞닿은 대형 화면 위에 굵은 붓질, 점 선·사각의 형상을 엮으며 국제 미술계에 독보적 위치를 구축했다.

서울대학교미술관에 작품 기증 박재호(59회화)

서양화가인 허 계 前세종대 교수(미술학과)가 배우자 고(故) 박재호 동문의 대표작 14점을 서울대학교미술관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남편인 박동문의 예술세계를 후학들과 우리 사회에 공유하고, 한국 추상미술의 주요 흐름을 공공 컬렉션에서 일반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뜻깊은 나눔이다. 서울대는 지난 11월 19일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감사패 증정식을 열고 허 계 교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홍림 총장, 허 계 교수 등 교내외 주요 인사들이 함께 자리해 소중한 기부의 뜻을 나누었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이후 연세대 교육대 학원에서 미술교육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동덕여대 교수, 경희대 미술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제3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비구상 부문 대상(1981) 수상으로 한국 추상미술계에 두각을 나타냈다.

제10대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 헌액 이순중(70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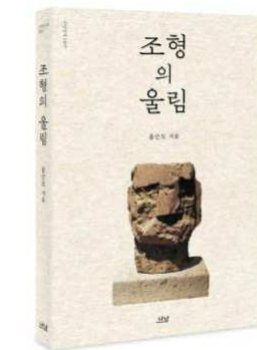
이순중 동문이 지난 11월 14일 산자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제 10대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선정되었다.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은 우리나라 디자인산업 발전에 공헌한 디자이너를 선정하여 디자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디자이너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 30년 이상 활동한 인물 중 관련 단체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헌액되며, 지금까지 제10대에 걸쳐 총 19명의 디자이너가 이름을 올렸다. 이동문은 본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공대(IIT) 대학원에서 시스템디자인, 디자인 전략 및 방법론을 전공한 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프로세스와 팀워크 중심의 체계적인 디자인방법을 도입하였다. 특히, 국내 최초로 디자인·공학·경영 간의 융합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디자인 연구와 교육의 현대화에 앞장서 왔으며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장으로도 활동 하고 있다.

'조형의 울림' 출간 홍순모(68조소)

홍순모 동문이 지난 11월 18일 책 '조형의 울림'을 출간했다. 책은 조각가이자 미대 교수로서 50년간 미술 교육과 창작에 헌신해온 홍동문이 조형의 아름다움과 감동의 근원을 탐구한 미학 교양서다. 조형예술의 본질부터 창작의 과정, 국내외 주요 작가들의 작품세계, 문화와 삶으로 확장되는 조형예술의 지평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특히, 일반 감상자, 작가, 비평가 모두 난해하게 느꼈던 조형언어를 체계적으로 풀어내며, 예술을 감상하고 창작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한편 모교 조소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홍동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인도, 중국, 러시아 등에서 개인전과 국제전에 참가했다. 목포대 미술학과 교수를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위원, 서울시 광화문 한글마루지 조성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계간미술', '월간미술', '공간' 등의 미술전문지에서 미술대학교수, 미술비평가, 작가가 뽑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으로 여러 번 추천되었다.

김중영미술상 수상 김주호(69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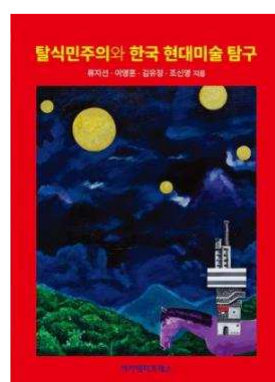
김주호 동문이 '제17회 김중영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중영미술상'은 한국 추상 조각의 선구자 김중영 선생이 추구한 '혁신과 변화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우성김중영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상으로, 2016년부터 매일경제와 공동 주최하며 미술의 전 영역으로 수상 범위를 넓혀왔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14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김중영미술관에서 열렸다. 특히 김동문은 지난 6월 '김세중조각상'을 수상하며 이미 올해 미술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조소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졸업 후 창문여중과 보성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다, 1992년 강화군 내가면으로 이주하며 전업 작가로 전향했다. 이후 30여 년간 강화도에서 작업과 생활을 이어오며 사람, 사회, 평화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왔다.

'탈식민주의와한국 현대미술 탐구' 출판 류지선(89서양) 외 3인

류지선, 이영훈, 김유정, 조신영 동문이 지난 11월 5일 책 '탈식민주의와 한국 현대미술 탐구'를 출판했다. 책은 탈식민주의라는 관점과 생애사적 연구의 이론적 틀을 통해, 한국성과 비서구적 미의식을 탐구해 온 한국현대미술 작가들의 탈식민적 인식의 발생과 특화된 조형들의 기저를 드러낸다. 책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전반부에서는 탈식민주의의 개념과 그것이 현대미술과 맺는 관계를 설명하고, 서구를 비롯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개된 탈식민 미술의 실천 사례를 소개한다. 후반부



에서는 한국 현대미술에서의 정체성 탐구의 흐름을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어서 강요배, 김수자, 박생과, 박이소, 장우진, 전광영, 배병우, 서용선 등 총 8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그들의 삶과 작업을 생애사적 관점과 도상학적 방법론을 통해 고찰한다. 한편 류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진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영훈 동문은 S-미술아카데미에서 강의 중이다.

동문소개

이혜주(69응미) 중앙대학교 명예 교수



이혜주 동문은 무한 경쟁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 대학원 졸업 후 칠보공방을 운영하던 시절 백동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대형 금속공예작품으로 국전에 특선 및 주요 공

모전에서 다수의 수상을 했다. 미국 유학 중 당시 이동문 고유의 새로운 FELT 반투명 기법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이 미국에서도 주요 공모전에서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워커힐 미술관에 설치되었던 이동문의 작품은 많은 평론가와 미술 애호가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2006년 브랜드 디자인 경영에 대한 저서 『감성경제와 Brand Design Management』를 발간하였다. 이는 21세기 멀티시대에서 이미지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오늘날에는 개개인의 상상력이 무기가 될 수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의 무형적인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5-I이론, 9-E 이론을 창시하였다. 감성 시대의 문화는 전통적인 예술뿐만 아니라, 팝이나 록 등 대중문화를 망라하기 때문에 팝아트 이후의 문화 현상이 새로 정립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5-I이론으로 설명하며 Interaction, Imagination, Interest, Individualism, Intellectual Capital 로 정리하였다. 또한 9-E이론은 감성 욕구를 Expression, Expectation으로 라고 명명하고 Energy, Elegance, Experience, Equity, Efficiency, Entertainment, Easyliving 등으로 설명한다. 이동문은 멀티의 시대, 여성의 시대를 2007년부터 이야기하며 창조적인 브랜드를 통해 세계를 재패하기를 원했다. 그는 미술 의상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브랜드의 중요성을 예지하여 브랜드매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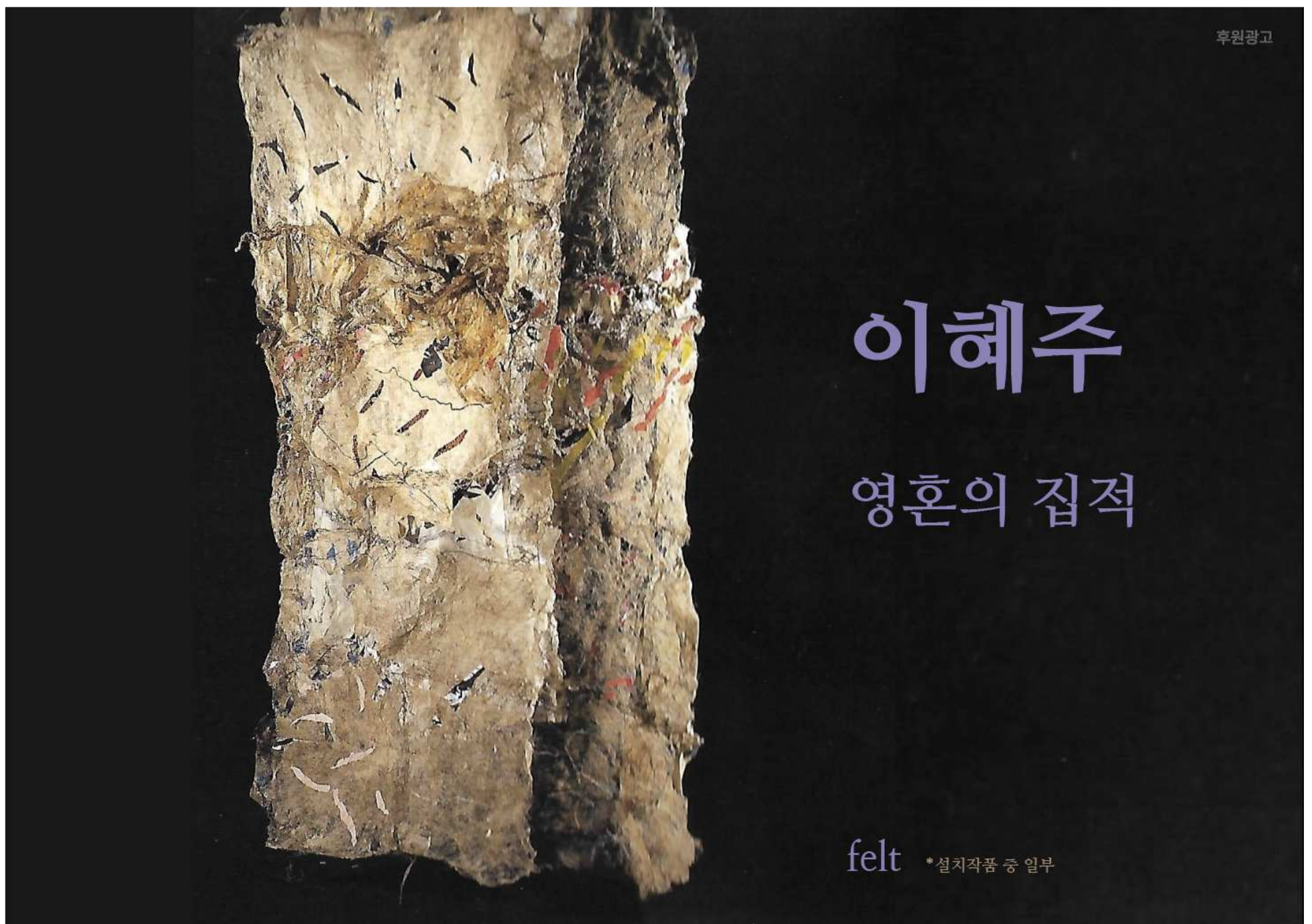
먼트 및 아르노믹스로 지도 범위를 확장했다. 사회의 변화를 빠르고 예리하게 통찰하며 학생들을 지도했던 그에게 '앞서가는 교수님', '예지력있는 교수님' 등의 별칭이 붙기도 했다.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동아시아연구회 등 다양한 학회를 창립하여 학계와 재계의 소통을 지속해왔다. 퇴직 후에는 지속가능과학회 공동대표직을 수행하며 제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가 되기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적 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5차, 6차, 7차 산업혁명에 대해 예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열어왔다. 지금까지 지속가능과학회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공로로 이동문은 2019년 9월 지속가능과학상



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지속가능과학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 'Sustainable News'에서 국가ESG연구원 대표(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재세계화를 통한 국가ESG 패러다임의 변화를 비롯한 주요 주제들로 2023년까지

지 꾸준히 새로운 글을 기고해왔다.

이혜주 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 학부 및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1983 미국 샌프란시스코대학교 대학원에서 섬유예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중앙대학교에서 교수 재직 시절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교환교수로 1년간 근무하며 '한국의 미'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1984년 주한 미국문화원초대 개인전을 시작으로 85년 버클리 퍼시픽.베이진갤러리, 86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91년 뒤셀도르프, 92년 마드리드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미협 및 가을 공예전 등 그룹전에 참여했다. 또한 <감성경제와 Brand Design Management>를 비롯해 <생활과학의 이해> 등 다수의 공저와 논문을 발표하였고 '뷰즈'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후원광고

이혜주
영혼의 집적

felt *설치작품 중 일부

관계의 조각들 최만린(54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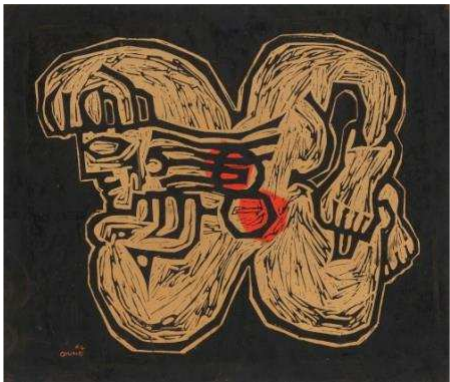
성북구립미술관이 2025년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개관 5주년과 조각가 최만린 동문의 타계 5주기를 기리며 기획전 '조각가의 사람들'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1,2부로 나뉘어 열렸다. 1부 '시대의 조각들'은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2부 '관계의 조각들'은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됐다. '관계의 조각들'에서는 최동문이 문학, 음악, 연극,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맺어온 교류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서신 160여 점은



그가 평생 간직한 3,700여 점 중 엄선된 것으로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됐다. 서신과 엽서는 당시 예술가들의 작품 이미지, 직접 제작한 판화와 드로잉으로 꾸며져 있으며, 각자의 개성적인 필체가 남아 있어 예술가들의 일상과 사유를 생생히 전달했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조소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제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을 했다. 1961년 모교에 출강하고 67년부터 2001년까지 모교 교수를 역임했다.

그림과 현실 한운성(65서양)

한운성 동문의 컬렉션 기증기획전 '그림과 현실'이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는 2026년 3월 22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한동문에게 이미지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고 탐구하는 방식이다. 이번 전시는 2023년 한동문이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한 195점의 판화 컬렉션과 미술관 소장품을 바탕으로 평생에 걸친 그의 예술적 탐구를 조망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한동문은 1970년대 초 미국 필라델피아 타일러 미술대학 판화과에서 유학을 했다. 이후 귀국한 그는 제2회 동아미술제 대상을 수상하



며 국내에서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1988년 문교부 해외파견 교수로 선정되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캠퍼스에서 사진판화 연구 및 다양한 매체로 시각 언어를 구축했다. 1992년 '페인트 브러쉬' 프로그램을 활용해 컴퓨터 드로잉을 시도했으며, 2021년부터 시작한 아이패드 드로잉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국내 최초로 모교에 석판화 프레스기를 들여와 석판화 교육의 기반을 다졌다.

월인천강(月印千江) 강경구(73회화)

강경구 동문의 '월인천강(月印千江)'이 지난 11월 4일부터 30일까지 Art Space X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강원도의 동강을 마주한 연포마을을 배경으로, 자연이 지닌 압도적 에너지와 작가의 몸을 통과한 감각적 울림을 회화의 언어로 환원하는 작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강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내면의 풍경'이라는 개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실제 강줄기나 산의 윤곽 보다는 그 자리를 바람의 압력, 날숨의 흐름, 체온과 마찰의 기억이 대신했다. 그가



말하는 회화는 감각이 응축되어 표면으로 밀려오는 장소이며,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감각하고 반영하는 자리다. 한편 강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금호미술관, 갤러리스케이프, 사비나미술관, 공아트스페이스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1999년 경원대학교 미술대학장을 맡았다. 현재는 가천대학교(전 경원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평행 우주를 품은 풍경화 김소선(63조소)

김소선 동문의 개인전이 2026년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갤러리 내일에서 열린다. 김동문의 작품은 평행 우주처럼 약간씩 어긋나는 미세한 차이를 통해 다층적으로 펼쳐지는 순수한 세계를 지향한다.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한 동물들을 통해 상상의 자유로운 세계를 그려낸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단순한 객체로서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을 안내하는 주체적인 동반자이다. 이들은 기존 질서와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유와 가능성을 탐구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그는 이러한 전복적인 동물의 여정을 통해 관객을



유희적이고 상상적인 세계로 초대하며, 현실을 초월한 독창적 공간을 제시한다. 한편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김동문은 갤러리내일(2022, 2023, 2024), 영국 런던 한국문화원(2008), 노르웨이 베르겐국립박물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일본 미키모토 진주도박물관, 멕시코 페멕스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제1회 광주도자엑스포(2000) 홍보작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가천대학교 사회교육원 위촉교수를 역임했다.

후원광고

김소선
초대전

내 갤러리 내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
B2 갤러리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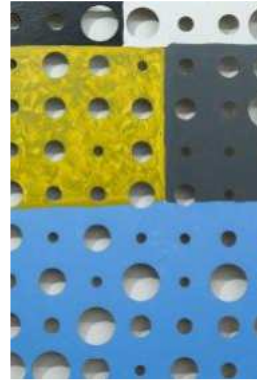
02)391.5458
Open 11am - 6pm
*월요일 휴관

평행
우주를
품은
풍경화

2026.1.16
— 1.28

시시·미미(微微) 윤동천(81회화)

윤동천 동문의 개인전 '시시·미미(微微)'가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갤러리밈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밈 3-6층 전관에서 열리며, 회화·사진·드로잉·판화·영상·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의 신작 70여 점을 선보인다. 윤동문은 '그림의 관점'을 거듭 질문하게 만드는 단어와 이미지의 조합으로, 관객이 현실의 관습을 유예하고 자신만의 '구체적 추상'으로 사유를 확장하도록 이끈다. 전시 서문에서 밝혔듯 이번 연작들은 "미술과 현실의 질긴



관계를 다른 방식의 기억으로 말한다"는 점을 짚으며, 전시장 전관을 '시각적 생활 박물관'으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한편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윤동문은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에서 수학했다. 제35회 이중섭미술상을 비롯해 국내외 유수의 상을 수상했다. 갤러리 현대, 국제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대영박물관, 뉴올리언스 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다수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는 모교 서양화와 명예교수다.

밝은 곳에 서있다 이기영(84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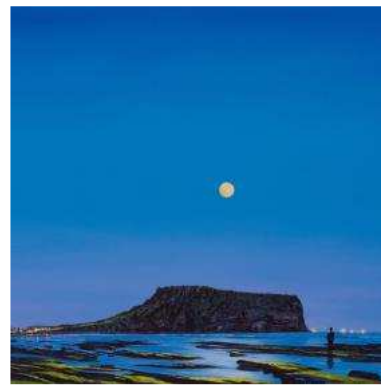
이기영 동문의 개인전 '밝은 곳에 서있다'가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갤러리밈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밈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이동문의 신작 22점이 출품됐다. 그는 한국화의 전통적 매체인 먹을 단순한 재현의 수단이 아닌, 기억과 행위, 직관의 흔적을 담는 실험적 물성으로 확장해왔다. 그는 소석회를 바른 한지 위에 먹으로 쓰고, 그리고, 지우는 과정을 반복하며 남은 먹의 흔적 위에 상감 기법을 적용해 선을 파내고 안료를 채워 넣는다. 정소라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은 "이기영의 화면은 재현을 의



도하지 않는다. 먹의 흔적과 색선은 단지 시간과 행위의 기록으로 존재할 뿐이다"라고 평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동양화와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젊은모색, 한국현대미술 중남미 4개국 순방전, 동양화 Paradiso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1999년 금산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시작으로 21회 이상의 개인전을 가졌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이화재단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계 - 사유적 풍경 안성규(86서양)

안성규 동문의 개인전 '경계 - 사유적 풍경'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갤러리 너트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런던, 베니스, 토스카나, 부다페스트, 바라나시, 서울, 제주 등 각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은 그림 총 23점이 전시됐다. 안동문의 작가노트에 따르면 그에게 풍경은 단지 자연의 한 장면이나 도시의 한 단면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살고 있는 세계이며, 그가 겪고 느끼고 사유해 온 시간의 흔적이고, 인간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리이다. 그는 현재의 도시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재현하지만 그것은 시각적 화면을 넘



어 내면의 풍경의 표현이다 현실에서 마주한 어떤 장면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의 감정과 존재가 반응한 응축된 이미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그림을 그릴 때 빠르게 결정하거나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고, 마치 시간과 사유를 겹겹이 쌓듯이 색을 반복적으로 칠하여 붓질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작업 한다. 한편 모교 서양화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안동문은 다수의 단체전 및 21회 이상의 개인전을 가졌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홍광현(86산디)

홍광현 동문의 초대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가 지난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한 진현재에서 열렸다. 홍동문은 오랫동안 전통서예와 현대회화를 넘나들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탐구해왔다. 그는 "글씨가 곧 그림이고, 그림이 곧 글씨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는 글씨와 그림의 경계를 허물고, 세련된 조형세계를 구축 중인 그의 대표작들과 회화 작업 등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됐다. 그는 특히 '먹'이라는 전통 소재에 매료돼 그 안에 담긴 침잠하는 듯한 컬러와 깊이를 표현하고자 10년 넘게 서



예를 수련해왔다. 해서·행서·초서·예서·전서 등 서예필법 오체를 모두 공부하고 연구해온 그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 부문에서 여러 차례 입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모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한 홍동문은 미국 내 명문 디자인 대학교인 패서디나 ACCD를 졸업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자동차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자동차 디자인 등과는 별개로 순수미술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다양한 작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Expressive Observation 류장복(85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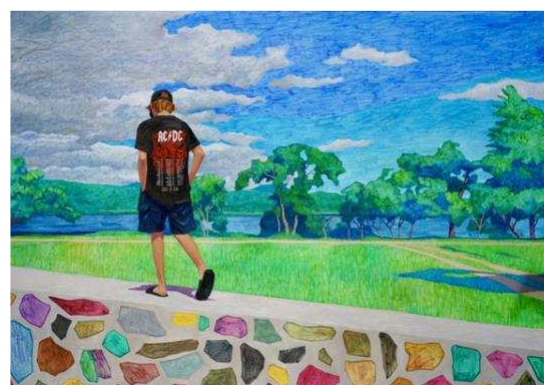
류장복 동문의 개인전 'Expressive Observation'이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discourse on art에서 열렸다. 류동문의 작업은 '관찰'이라는 아주 오래된 행위로부터 출발한다. 그에게 관찰은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표현적 과정이다. 이 과정 속에는 역사의 지정학적 관찰을 토대로 한 시선의 따뜻함이 존재한다. 류동문은 그동안 자본주의의 지정학적 화려함으로부터 배제되었거나 소외된 인간, 지역, 풍경 등 평범한 일상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전시는 그의 작가적인 태도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 외부 세계를 묘사하되 관찰하는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를 탐구하여 그의 작업은 관찰이 곧 표현이고, 표현이 다시 관찰로 이어지는 순환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류동문은 모교 서양화와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일민미술관, 권진규미술관, 길담서원, 아트레온갤러리, 통인갤러리, 호호갤러리 등에서 27회 이상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나른한 오후 서상익(97서양)

서상익 동문의 개인전 '나른한 오후'가 지난 11월 14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갤러리피플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서동문이 오랜 시간 이어온 '오후'의 정서를 통해, 변화해 온 자신의 회화적 태도를 되짚는 자리다. 그는 내러티브가 강조된 연극적인 공간 구성과 비현실적인 장면을 통해 자신이 마주한 현실과 내면의 고민을 회화적으로 풀어왔다. 그의 화면은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하지만, 언제나 사회의 풍경과 맞닿아 있다. 한편 서동문은 모교 서양화와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갤러리 나우, 더현대 서울, 학교재, 토탈미술관,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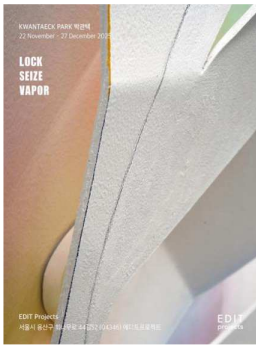


작품이 소장돼 있다.

현대, 장흥아트파크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2025년 'At Some Afternoon', 2024년 'Just Picture', 2015년 'Days of none of some', 'Monodrama' 등의 개인전을 열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인터 알리아, 하나은행 등에

LOCK SEIZE VAPOR 박관택(02서양)

박관택 동문의 개인전 'LOCK SEIZE VAPOR'가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에디트 프로젝트에서 열린다. 박동문은 동시대의 다양한 현상을 시각예술의 범주로 치환하며 감각과 시간, 공간, 매체가 어우러지는 확장된 경험을 탐구해왔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각도와 형태로 제작된 MDF 패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와 지지체, 전시 공간을 아우르는 '그림-오브제' 형식에 주목하며, '그리기'의 다층적 맥락에 대한 탐구를 이어간다. 전시 제목 'LOCK SEIZE VAPOR'은 '가위, 바위, 보'의 영어 발음에서 착안한 단어들로, 제



작 행위와 재료의 물성, 작업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현상을 중의적으로 드러낸다. Lock은 MDF 패널을 자르고 접으며 '고장'해가는 지지체의 구조를, Seize는 구축된 오브제 위에서 이미지를 상상하고 그림을 '붙잡아 포착'하는 행위를, Vapor는 지지체와 벽 사이에서 감지되는 미세한 공간적 감각, 즉 '부유하고 기화하는 상태'를 은유한다. 한편 모교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박동문은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석사학위를,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모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상의 기록 이윤진(02동양)

이윤진 동문의 개인전 '일상의 기록'이 평창동 아트스페이스퀼리아에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렸다. 이동문의 화면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 감정의 진동이 미세하게 흐른다. 순지 위에 수묵으로 점을 찍는 단순한 행위가 반복되며, 일상의 시간과 내면의 파동이 차곡이 쌓인다. 점과 점 사이에는 멈춘 듯한 순간의 숨결과 사유의 흔적이 깃들여 있다. 이동문은 수묵의 번짐과 여백을 통해 감정을 정화하고, 반복적 행위를 사유의 과정으로 전환한다. 그는 "점 하나를 찍는 행위는 마음의 파동이자 내면의 기록이며, 반복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수행"이라 말했다. 그의 화면은 정중동(靜中動)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정적인 형식 속에 잠재된 생명감을 드러낸다. '일상의 기록'은 그가 오랜 시간 탐구해온 내면의 흐름을 차분히 보여준다. 관람자는 작품 속 점들의 리듬을 따라가며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고, 잊고 있던 사유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동문은 모교 도양화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예술고등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꾸준한 창작과 전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느 예술가의 Timeline 정해윤(04동양)

정해윤 동문의 개인전 '어느 예술가의 Timeline'이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렸다. 정동문은 장지 위에 동양화 물감과 금분, 은분을 겹겹이 사용하여 유화 같은 질감을 낸 한국화의 현대적 색감을 보여주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는 인간 관계와 소통을 주제로 개개인 이 갖는 역할과 의무, 그리고 그 관계 속의 집합체를 그려나간다. 작품 속 화면에는 박새가 주로 등장하며 이를 중심으로 실, 서랍, 파이프, 돌 등의 소재가 함께 등장한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인간들의 사이를 연결하는 관계망의



모습을 표현한다. 한편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정동문은 런던 뉴데이스 갤러리, 가나 아트센터, 갤러리현대원도우 갤러리, 베를린 아마쿨숏스갤러리, 쉐라톤 서울 팔레스 등에서 주요 개인전을 개최했다. 서울, 제네바, 네덜란드, 파리, 이탈리아, 미국 등 국내외에서 열리는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또한 미국 아트오마이, 미국 버몬트스튜디오 등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안개와 뼈 between fog and bone 기민정(05동양)

기민정 동문의 개인전 '안개와 뼈 between fog and bone'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MO BY CAN에서 열렸다. 기동문의 작업은 괴석에 대한 오래된 시에서 발견한 바람에 대한 감각에서 시작한다. 괴석의 구멍 사이로 흐르는 바람을 동아시아 회화의 '골육(骨肉)'개념과 연결짓는다. 골은 붓의 용필법 중 선을, 육은 색을 뜻하며 화면 속 뼈와 살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회화적 사유를 보여준다. 기동문은 그간 화선지와 유리를 지지체로



삼아 작업을 지속해왔다. 이번 작업들은 금 속성 판위에 화선지를 오려붙여 여백의 응결을 새로운 물질적 은유로 변환하는 실험이다. 투과의 매체였던 유리에서 반사의 표면으로 이동하면서, 빛과 흔적은 더 직접적으로 표면 위에서 충돌하고 공존한다. 한편 기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송은아트스페이스, OCI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The Prayers 김훈규(05동양)

김훈규 동문의 개인전 'The Prayers'가 지난 11월 7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도산대로 페로탕 서울에서 열린다. 김동문은 고려불화의 정밀한 표현과 비단 채색기법을 토대로 동서양의 회화적 어법을 혼성시키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김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종교와 신념이라는 세계로 관심을 확대하여 기독교의 붉은 가재, 불교의 뱀, 천주교의 남방가재 등 종교별 '지배 동물'을 설정해 권력과 믿음의 역학을 시각화했다. 페로탕은 "유머와 풍자로 가득한 그의



작품에서는 부패와 어리석음, 방종의 위험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돋보이며, 이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김훈규는 동서양의 회화 언어를 잇는 작가로, 현대적 영성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및 영국 왕립예술대학(RCA)을 졸업하고 현재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올모스트 파라다이스 현승의(11동양)

현승의 동문의 개인전 '올모스트 파라다이스'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열렸다. 현동문은 제주도와 검정색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에게 검정이라는 색은 침묵의 동의어다. 복잡하게 얽힌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꼬집어내면 시커멓고 진한 이미지가 화면에 옮겨진다. 그래서 그에게 검은색은 고요하지만 동시에 무수한 현상의 북적이는 결집체로 작동한다. 또한 현동문에게 제주도는 배제된 것들의 역사와 미래를 성찰하도록 만드는 공간이자 작업의 구심점이다. 쉽게 결론지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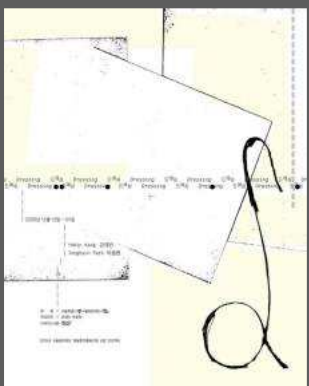


지 못하고 쌓이는 어딘가 불편한 이야기들, 이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내재화되어 마음 한켠에 쌓이며 비로소 예술로서 그 이야기들이 발화되곤 한다. 한편 현동문은 모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그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경험한 관광지의 화려함과 낭만, 그리고 그 이면에 가려진 여러 사회적인 이야기를 냉소적으로 제시한다. 이상화된 풍경 속에 담긴 자본의 논리, 미묘한 불안을 포착해 오늘날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현실과 낭만 사이의 공허함을 드러내고 있다.


12월의 전시



바르도 : 두 집 사이
김주환(93조소)
12.12~2026.1.10
금호미술관




Dressing
박종현(15서양) 외
12.12-31
아케이드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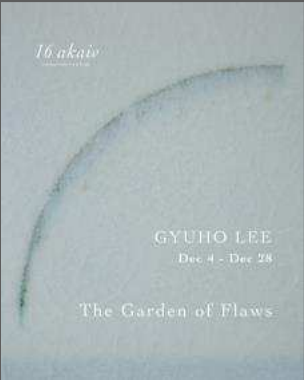
제25회 송은미술대상전
윤미류(석16서양) 외
12.12-26.2.14
송은미술관




그림과 현실
한운성(65회화)
12.9-26.3.22
서울시립미술관




Gore Deco
장파(07줄 서양)
12.9-26.2.15
국제갤러리




결함의 정원
이규호(12공예)
12.4-28
16 아카이브




보이스 오버
장보운(석13줄 서양)
11.29-26.1.10
아트센터 예술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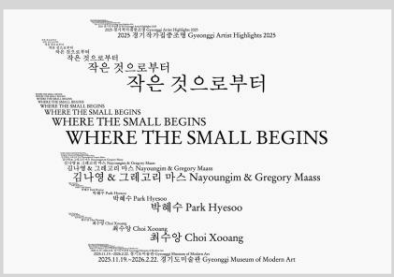
마그마가 흐르듯이
임창곤(14서양)
11.29-12.28
중간지점 둘




Etre-H2
김남표(91서양) 외
11.28-12.25
다이아몬드지




LOCK SEIZE VAPOR
박관택(02서양)
11.22-12.27
에디트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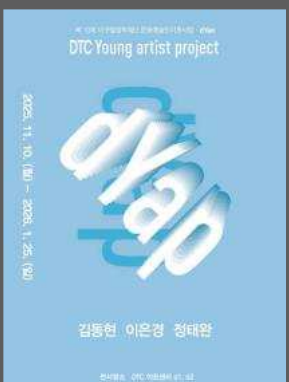
작은 것으로부터
김나영(84조소) 외
11.19-26.2.22
경기도미술관




전환기, 김종영의 선택
김종영(교원)
11.14-26.1.25
김종영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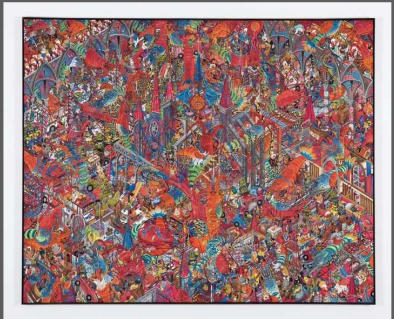
먼지를 걷는 자들
권현빈(10조소) 외
11.13-12.20
신한갤러리 역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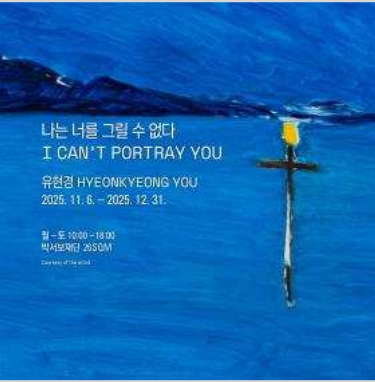
DTC 청년작가 프로젝트
이은경(13동양) 외
11.10-26.1.25
대전북합터미널 DTC 아트센터




꽃은 꿀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양혜규(90조소) 외
11.8-26.3.31
상해당대예술박물관




The Prayers
김훈규(05동양)
11.7-12.20
페로탕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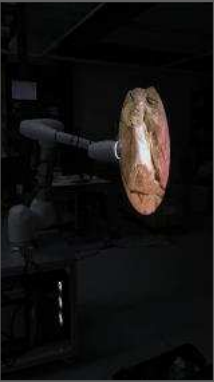
나는 너를 그릴 수 없다
유현경(05서양)
11.6-12.31
26SQM 박서보재단



점 · 선 — 감각
차명희(64회화)
10.2-12.28
뮤지엄호두



번지고 남아있는: 장욱진 먹그림
장욱진(교원)
9.30-26.4.5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시시(時詩): 시간의 시
박제성(98디자인)
8.8-26.1.25
울산시립미술관